





지난 몇년 사이 세계사 변화는 실로 변화무쌍하여 예측불허의 사태를 연출하였다. 초강국 사회주의 소연방이 해체되고, 동-서독이 통일되었으며, 전후 세계질서를 지배해온 냉전을 소멸하였다. 소연방의 적자를 자부하는 러시아는 미국과의 군사균형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중국도 개혁에 여념이 없다. 겉표전은 미국의 확고부동한 위치를 보여주는 듯하였다.

그러나 소연방이 없는, 사회주의의 위협이 없는 세계질서는 그에 대항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유럽은 유럽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기지개를 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발한발 내딛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무중심대만은 아니다. '로즈비 킹' 쿠기타시장을 계기로 촉발된 LA 흑인폭동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나는 국내 경제우선주의는 과거 냉전체제의 군사적 대결에 가려져 있던 미국 사회의 모순이 냉전의 수면으로 급부상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의 편중으로 인한 계급모순의 첨예화와 경제불황이다.

먼저 부의 편중으로 인한 계급모순의 심화를 살펴보면, 지난 69년 71%이었던 89년에 63%로 줄었고, 고소득층은 10.9%에서 14.7%로, 저소득층은 18%에서 22%로 증가하였다. 특히 77년부터 88년까지 최상층을 구성하는 1%의 순소득은 1백22%가 늘어난 반면 최하층 20%의 순소득은 오히려 10%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과거 민주당의 카터정부나 그 이전의 포드와 닉슨 정부 때보다도 레이건 정부와 부시 현 정부 하에서 더 악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현부시정부가 레이건 정부를 지칭하여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오명이 붙기도 하였다.

경제상황 역시 그리 좋지 않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레이건 이후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불리우던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이 세계에서 시장을 하나하나 잃음은 물론이고 자국시장까지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설비투자면에서도 미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판매부진에 빠진 자동차의 경우, GM사는 올해 투자를 애초보다

의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다. 부시의 장기인 외교적 성과보다는 국내문제(실업, 산업경쟁력 확보, 보호주의의 등)가 미국인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초기 패로의 돌

말함이 강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과거 군사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국력이 이제 냉전의 해소로 인해 과거의 유산이 되었으며, 이제 기술과 경영자의 창의성 등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보며, 미국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를 '국가안보의 핵심적 이슈'로 다루었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은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것이며 부시가 당선된다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위와같은 미국의 변화는, 경제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남한에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즉 쌍둥이 적자의 하나인 무역적자를 막고 미국내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미국내의 실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보호무역은 남한의 수출에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 무역 불균형 국가에 대한 개방압력 역시 강화되어 남한에 대한 시장압력 역시 가해질 것이다.

방위비 부담에 대한 압력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억제력과 대외억제력으로 부분적인 대북억제력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의 위치로 변화시키고 있어, 남한정부는 자체방위를 목표로 군의 현대화를 위해 최신무기도입을 하는 등 병력조정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군사안보에 공화당보다 소극적인 민주당의 클린턴이 될 경우 더욱 가중되는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단지 부시의 재선이나 아니면 클린턴의 당선이나 하는 것과 같이 백악관의 주인을 가리는 것보다는, 냉전 이후 미국, 미국의 정서의 흐름과 고전, 그리고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쪼여질 미국의 향후 전략과 전술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장이 되고 있다.

가 다들, 대상들이 연속되므로 유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물리과학만이 정확하고 보편적인 지식을 마련했고, 다른분야는 이론이라 할만한 것이 없었고 해서 이론에 대한 관심이 큰 문제임을 드러냈다. 과학이 부정확한 이론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이라면 세 바늘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과학이다. 특히 우리 실상에 대한 이론에서는 객관성 못지않게 주체성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체성의 우월함을 인문과학, 특히 국학에서 찾을 수 있다. 종한이론으로서 종대용의 기정학과 정신활동으로서 종한기의 신기론(神氣論)이 그것이다. 그러나 물리과학의 전통은 객관성, 특히 기(氣)의 개별과학적 탐구가 부실함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의 메타과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다'라는 주체철학으로 넘겼다고 했다. 그러나 종대용이나 종한기의 기정학을 미숙한 유물론으로 보는 한 서구의 토양에서 나온 이론론을 여전히 답습하는 셈이다. 요컨대 메타과학으로서 기정학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과 정신중 일방의 우세를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개별적으로나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삼 <대학원 석사과정·국문학>

### 사설

## '다시' 학생의 날을 되새기며

다시 63년전인 1929년 11월3일의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지는 건 아니다. 그해 11월12일 배포됐던 '용감히 싸워라, 학생! 대중이여, 우리의 슬로건이라 걸기하라. 승리는 오직 우리들의 단결과 희생적 투쟁에 달려 있다'는 내용의 격문을 붙여보자는 얘기는 더욱 아니다.

다만 어제(3일) 학생의 날 63주년을 맞아 어느때보다 쓸쓸한 동우랍과 단과대학생회선거 이후의 학내상황, 그리고 '학생운동의 위기'라는 평가와 상관없이 보이는 학생회사회의 담습을 보면서 학생의 날이 73년 폐지되고 다시 부활해 왜 오늘에 이르렀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물음부터 해보자는 것이다. 일제식민지부터 내일로 이어지는 학생운동의 역사적 성과는 그동안 꾸준히 재발적으로 인정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아가갈 지표를 모색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다시' 학생의 날을 되새기는 의미는 비단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거나 진부한 형식주의는 아닐 듯 싶다.

학생운동이던 내일 일고있는 갈등과 중요시거마다 꼭 사소한 문제로 분열했던 모습은 정어두고라도, 학생회운영의 원칙과 방도는 이제 아니더라도 현실적 모습을 반성해 보자.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학생회관갈등과 강화공약이 오히려 공허한 메아리로 마구리되고 있음을 각성해 보자. 또 1학기 등록금투쟁이나 2학기 총동원회비문제, 총학생선거시절에서 보였던 굴절된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되새겨 보자. 아울러 학생운동이 그렇듯이 대학사회도 전환기·모색기를 겪고 있다.

대학행정자로서, 시설현황 등이 이미 '위협수위'를 넘어섰다는 각계의 평가분석이 활발하고 이제 대학도 국제경쟁력을 강화,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 모색도 충분했다. 학생의 날을 맞으며 지금 우리사회의 대학의 위기가 어디이고 그 진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학문화, 대학사학, 대학생의 생활태도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가 좀지않았던 까닭이다. 대학주변에 서점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말은 이제 옛이야기가 돼버렸다. 휴카페, 노래방, 오락실, 여관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 문방구마저 사치소비성 상품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대학인은 무엇이라 변명하겠는가.

'다시' 학생의 날을 되새기고자 한다. 이는 1929년 11월3일의 쫓겨간 학생운동사의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며 대학인이 사회에 대해 어떠한 사랑의식과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 극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의 대학인과 대학사회는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과거사'로만 치부하지는 않는가라는 걱정때문이기도 하다.

92년세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안방향을 위한 두가지 견해의 차이는 뚜렷하다. 민주세력 단결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민중의 요구는 오히려 '민중의 함성'이란 외곡으로 외면당하지는 않는가 철저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1929년 11월 항일학생운동은 결코 자신의 주의주장을 검증받고 선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민족을 구하자던 '정의'였다. 학생의 날 63주년을 맞으며 후 흐르던 대의를 저버린 채 방황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경계한다. 63년전 항일학생운동보다 일제의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대의를 굽히지 않았던 청년학도들의 심정을 되새겨 본다. 그 대의가 오늘 대학인의 심정에 고동치기를 바라는 것이 '다시' 학생의 날을 되새기자는 의미이다.

### 초대만평

최경인

## 터프리고 보자!



이상삼

<대학원 석사과정·국문학>

# '개방압력' 폭풍이 몰려온다

## 미국 대통령선거와 한반도

11억달러 줄인 66억달러로 조정하였다. 항공산업의 경우,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투자를 계획보다 67억달러 줄인 1백27억달러로 책정하는 등 미국의 경제가 밝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겉표전이 이젠 경제불황과 부의 편중을 개선해 주지 못함을 미국과 미국인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깨닫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은 12년 집권한 공화당에 대한 반감, 그리고 반부시의 기류로 나타나고 있고, 부시의 재선을 가로 막으며 이른바 '신코리올리'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있다. 즉 미국인은 국제 문제 해결에 장기를 갖는 '국제대통령'이 아닌 국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미국

중, 그리고 애초 부시 재선가도의 틀러리 로만 생각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클린턴이 선거에 임박하면서 역전극을 연출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와 타국에 대한 '시장개방'정책이라는 것이 그리 이상한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통상부분 정장을 살펴보면 '수출증진, 농산물의 교역확대,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주요 경쟁국의 시장개방' 등을 통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싸워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경쟁 무역에 대해서는 "미국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고 못박으며, 현 부시의 공화당보다 한층 더 보호무역으로 나갈 것과 통상

### ◆제5회 대학원 학술강연회 조록

## '우리이론에 대한 요청과 응답'

# 기(氣) 철학 과학적 탐구 부족

대학원 제5회 학술강연회 '전환시대의 한국학을 위한 인문학의 반성과 전망'이 오늘(4일) 오후3시 동국관(1401)에서 조동일(서울대 국문학)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우리이론에 대한 요청과 응답'을 연제로 한 이번 강연회에서 연사 조교수는 △이원우의 W이론을 만들자 △진제은의 천재, 그 창조성의 비밀 △장희익의 과학과 메타과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우리이론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면서 기(氣)철학의 개별과학적 탐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조동일 교수의 강연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편집자>

공리공론으로 치부하고 정형실무와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의 X이론(표준화·관리감독·능력급제)과 Y이론(동기부여·창의력증진), 일본의 Z이론(종질향상·원가절감·간판(看板)시스템)에 비견될 만한 우리 이론을 'W이론'이라 상징화한다. 이 W이론의 골자는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것이며 원가의 5~10%미만인 저임금에 의존해온 국제경쟁력을 신드론 작업자들에게서 나오는 하이테크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바람은 교육혁신, 산학협동, 율령법 규제달리스트의 성실성 배우기, 희생정신과 밝은 전망을 가진 지도자등의 조건이 충족될때 나온다고 했다.

이러한 W이론의 실상은 과학의 실용성과 사상성에서 사상성을 실용성의 수단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보면타당한 가치와 논리를 갖지

못한다. 이론은 세계를 생존경쟁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계사의 과정을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는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수가 새로 만든 강의노트를 통해 여러 전공분야의 창의력 있는 학생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창의력을 제발하는 교육이다. 교육학자 김재은은 '천재, 그 창조성의 비밀(교보문고, 1991)'에서 천재는 평생토록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창조적 직업을 해서 결과물이다. 모두 특출한 사람이며, 문화적 가치발전의 논리적 패턴을 현실세계 교육은 천재적 발견해서 자기 능력을 자각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일일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자의 천재론은 모두 수입·조립한 지식이라는 것과 교육의 가치를 지나치게 무시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천재의 역할은 비

록 선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교육은 천재가 자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수준높은 창조적 여건과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일하는 신라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수립을 통해 삼국통일의 이상을 마련했고, 이규보나 최한기도 당대의 과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다서 결국적으로 다른 시대를 예견하고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오늘날 제3세계, 특히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과업은 사고방식, 사회구조,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남북통일과 통일사회를 설계하며 세계사에 남겨진 이념대결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이론은 물리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인문과학)의 특출한 성과를 종합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메타과학이다. 장희익은 '과학과 메타과학(지식산문사, 1990)'에서 '세 분야는 다루는 대상의 크기

## 1993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 모집과정 및 학과
  - 가. 석사과정
    -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 나. 박사과정
    -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 모집인원
  - 석사과정 ○○○명
  - 박사과정 ○○○명
- 시험과목 및 내용
  - 가. 석사과정: ①영어 ②전공 ③구술고사 영어시험은 4방향(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고, 전공시험은 각 학과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 나. 박사학위과정
    - ①영어 ②제2외국어(해당학과에 한함) ③전공(공통, 세부전공) ④구술고사
- 시험일정
  - 가. 원서접수: '92. 11. 4(수) - 11. 11(수)
  - 나. 원서접수기간: '92. 11. 9(월) - 11. 11(수)
  -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부
  - 라. 시험일시 및 장소: '92. 11. 20(금) 10:00 동국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260-3093, 260-3094  
**동국대학교 대학원**

## 93학년도 일본 용곡대학 유학생 선발

-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 ①선발분야: 용곡대학 개설 전학과
  - ②선발인원: 2명(학부1명, 대학원석사/박사과정1명)
- 지원자격
  - ①본교학부에 재학중인자로 1년간 휴학이 가능한 자
  - ②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 ③학부전공, 석사과정전공, 박사과정 희망전공이 일치하는 자
  - ④학부및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⑤법령상 해외유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⑥이상의 모든 조건을 구비한 자
- 제출서류
  - ①지원서 1부(소정양식)
  - ②학부및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2부
  - ③학부및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2부
  - ④지도교수, 학과장 추천서 2부
- 선발방법
  - ①서류심사
  - ②일일특례, 작문, 회화시험
  - ③면접 및 자질심사
- 시험일정
  - ①원서접수 및 접수: '92. 11. 9(월) - '92. 11. 13(금)
  - ②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92. 11. 17(화) 합격자 개별통보
  - ③2차 일일특례 및 작문시험: '92. 11. 19(목)
  - ④3차 일일회화 및 면접: '92. 11월중 합격자 및 면접일자 개별통보
- 원서접수 및 접수처
  - 기회조정실 국제부
  - \*기타 문의사항은 기회조정실 국제부로 문의바람(☎260-3024 승선수)

국제부장

## 병무 민원 음성자동안내

<자동안내 목록>

번호	구분	내역	구분	내역
11	민원안내	11 민원안내	11	민원안내
12	민원안내	12 민원안내	12	민원안내
13	민원안내	13 민원안내	13	민원안내
14	민원안내	14 민원안내	14	민원안내
15	민원안내	15 민원안내	15	민원안내
16	민원안내	16 민원안내	16	민원안내
17	민원안내	17 민원안내	17	민원안내
18	민원안내	18 민원안내	18	민원안내
19	민원안내	19 민원안내	19	민원안내
20	민원안내	20 민원안내	20	민원안내
21	민원안내	21 민원안내	21	민원안내
22	민원안내	22 민원안내	22	민원안내
23	민원안내	23 민원안내	23	민원안내
24	민원안내	24 민원안내	24	민원안내
25	민원안내	25 민원안내	25	민원안내
26	민원안내	26 민원안내	26	민원안내
27	민원안내	27 민원안내	27	민원안내
28	민원안내	28 민원안내	28	민원안내
29	민원안내	29 민원안내	29	민원안내
30	민원안내	30 민원안내	30	민원안내
31	민원안내	31 민원안내	31	민원안내
32	민원안내	32 민원안내	32	민원안내
33	민원안내	33 민원안내	33	민원안내
34	민원안내	34 민원안내	34	민원안내
35	민원안내	35 민원안내	35	민원안내
36	민원안내	36 민원안내	36	민원안내
37	민원안내	37 민원안내	37	민원안내
38	민원안내	38 민원안내	38	민원안내
39	민원안내	39 민원안내	39	민원안내
40	민원안내	40 민원안내	40	민원안내
41	민원안내	41 민원안내	41	민원안내
42	민원안내	42 민원안내	42	민원안내
43	민원안내	43 민원안내	43	민원안내
44	민원안내	44 민원안내	44	민원안내
45	민원안내	45 민원안내	45	민원안내
46	민원안내	46 민원안내	46	민원안내
47	민원안내	47 민원안내	47	민원안내
48	민원안내	48 민원안내	48	민원안내
49	민원안내	49 민원안내	49	민원안내
50	민원안내	50 민원안내	50	민원안내

병무청

# 철사들의 '특별한' 모임



◇김우중 씨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한국당(가칭) 창당이 불투명해지긴 했지만, 새한국당의 창당 움직임은 국민을 외면하고 오직 정권장악에만 집착하는 정치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 신당창당 어떻게 봐야 하나

# 대선 결정적 변수 못돼 국민외면한 정치현실 "확인"

새한국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왜 신당을 만드려 하는가' 의아해했다.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5공세력이나 민정계 출신이란 점과 반 양극구조 개혁을 외치면서도 6공의 실정을 비판하고 나온다는 점은 신당구성원과 공약상의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특별한" 정치철사들의 모임, 신당창당 움직임과 관련, 이것이 주는 의미와 한국정치현실을 바로보고자 한다.

수로 떠올랐던 세력이 있다. 바로 새한국당(가칭) 창당 추진세력이다. 이들은 현재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당을 서두르고 있으며 조만간에 대선후보를 올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창당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이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남한 지배계급의 일원이었다는 점에 있다. 이들 세력의 거의 전부가 3당합당 이전부터 민주당에 몸담아왔고 어느 누구보다도 법외연선의 이해를 옹호하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사실 이들이 스스로도 소수세력임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권력획득에 나섰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정치적 권력으로 볼 때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자리

정치적 권력으로 볼 때 이후 한국사회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규정할 대선을 앞두고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이 어떻게까지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남담하기 어려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노심의 함계에 대한 논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소위 '11월 대변론'이란, 간첩당 사건이 민자당내 민주계 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미화시킨 소문도 이러한 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

## ◇제언: 학생회 간부 혁신 학생들과 함께하는 생활부터

### 사업 '답습'... 학생들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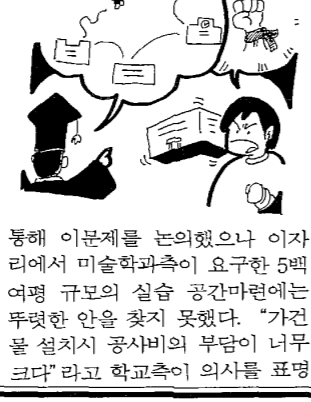
'위기 학생회' '학생운동 대중성 확보' 위한 사업모색 활발' 이미 이러한 진단과 논의는 87년말부터 시작됐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학생운동정체, 혹은 위기라는 진단과 대안모색이 활발했고 학생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모색은 87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대협도 몇 년전부터 '대중적으로만 가지'로 대중성을 견지한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상황으로 학생회사업의 기획·집행은 간부들 중심이기 때문이다. 또 매년 계속되는, 똑같은 학생회 비판은 간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럼 주위에서 보려는 학생회 간부들의 모습은 어떤가. 먼저 학생들의 생활적 정서에 기반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수업에 열심히 하고 시간이나 회의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가 '어제 술자리'로 '정인일'로 '동'의 변명은 하지 않는가. 나아가 학생회운영의 원칙을 학생대중의 정서에 기반해 하고 있는가. 혹 이기주의·보수주의화된다고 학생들을 단결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약로

"단일공간이 아닌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단일공간 확보부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달달한 입상들



이런 공간이 아닌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단일공간 확보부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 2일 동국관(L213)에서 전체 학과장회의를

해 이 가건물설치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이자리에서는 미술학과 강의를 93년 1학기부터 강의배정표를 재조정해 동국관, 해외관등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강 동 찬

전대기련 대학생 설문조사 전국 5개지역 1천5백70명 대상 학생회 참여율 83%로 높아 단결하면 정권교체 가능 75.6%

## △ 설문대상 계열·학년별 분포

계열	인원(%)	학년	인원(%)
인문	422 (26.9)	1	444 (28.5)
사회	438 (27.9)	2	465 (29.6)
예체능	72 (4.5)	3	449 (31.8)
자연	639 (40.7)	4	158 (10.1)
계	1570 (100)		

다음으로 대통령선거에 대한 질문에서 '이번 선거에 투표할 것인가'는 질문에 '하겠다'가 83.4%로 나타났다. '대부분 참여한다'가 27.2%, '적극 참여한다'는 16.8%, '관심없다'는 16.4%로 나타났다.

다행히 올해 학생회선거공약의 경우 실천가능한 '학생회활성화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것은 학생회간부와 일반학생들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정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먼저 '간부혁신'의 중요성

### 운전을 배우시다

24년 전통·성실한 교육

①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침기 교육  
② 택시수 무료 운영  
③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④ 외국어(일본·중국) 특별취급  
⑤ 실습시간 자유선택  
⑥ 통학버스 무료 운행  
※ 면허소지자 사내운전연수

\*\*\*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

學校法人 新進學園

##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매주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633) 3962-3963	0036-7
西部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5	

## 일본·미국 유학설명회

일본 赤門會 日本語學校

1400여명의 졸업생 배출  
93년 4월학기 대학(원) 진학지도  
대학(원) 진학지도  
전문대 진학지도  
국내·외가 동거·동학의 후원

미국 DBA Galvin International Academy  
Galvin Flying Service, Inc. 7149 Perimeter Road  
Boeing Field, Seattle Washington 98108

80년의 역사와 전통  
미국 서북부지역 최대 비영리학교  
93년 1월 학기 고졸이상 해외유학 경력 사육 없는 자  
영어연수 Skagit Valley College, Edmonds Community College TOEFL 550점·미달자 조건부 입학가능  
항공중조사 유학(FAA 자격증 취득) 국내 항공사 우선취업  
항공기 정비사(주립전문대 졸업과 동시 FAA 자격증 취득)  
93년 상반기 국내에서 취업가능

설명회 일시: 1992년 11월 7일(토)  
미국중조사·영어연수 오전 11~오후 1시  
일본유학·영어연수: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The Korea Herald 2층  
코리안 헤럴드 외국어학원 강당 (충청)  
(전철호선 역을 지로입구 역 - 광교역)  
\* 아가페가이 일본어학교 교장과 미비행학교 관계자 참석

서울 사무소 (등록필수)  
A.M.K 海外教育開發院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 (경기빌딩 404호)  
전화: (02)723-1235~5 팩스: (02)723-1726  
(2호선 을지로입구 광교역출구-2번출구)

공동주최  
The Korea Herald 직영  
코리안 헤럴드 외국어학원  
\* 합격자 중급 일본어 무료 수강

## The Korea Herald 직영

# 코리안 헤럴드 외국어학원

지금 곧 시작하십시오!

개강 11월 2일

英語·日語·中國語·佛語·러시아어

코리안헤럴드 사설 / TIME / 아카데미 TOEFL / VOCA 22,000 / 성문종합영어 / 기보영어 / 영어실용 기초 / AFKN TOEIC L / C / TOEFL C 및 미국어 Hearing / TOEIC 문법 / 생활영어회화 / 생활영어회화 / 일본어교본 (원문) / 일본어회화 / 미국어회화 / 외대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영어·불어) / 중국어 / 러시아어 / 각 코스 기초부터 고급까지

지하철 을지로입구역(2호선) 을지서역역 역회그리진빌딩  
TEL 757-0419-0420

## 15日 東醫 한마당 특강!

(시암도인 침술원리 총론 강좌)

미국 남가주(LA)발원 중점임의의 인터뷰!

11/12 일 11:00~12:00 (18:30~19:30)  
11/13 일 10:00~11:00 (18:30~19:30)  
11/14 일 10:00~11:00 (18:30~19:30)  
11/15 일 10:00~11:00 (18:30~19:30)  
11/16 일 10:00~11:00 (18:30~19:30)  
11/17 일 10:00~11:00 (18:30~19:30)  
11/18 일 10:00~11:00 (18:30~19:30)  
11/19 일 10:00~11:00 (18:30~19:30)

11/12 일 11:00~12:00 (18:30~19:30)  
11/13 일 10:00~11:00 (18:30~19:30)  
11/14 일 10:00~11:00 (18:30~19:30)  
11/15 일 10:00~11:00 (18:30~19:30)  
11/16 일 10:00~11:00 (18:30~19:30)  
11/17 일 10:00~11:00 (18:30~19:30)  
11/18 일 10:00~11:00 (18:30~19:30)  
11/19 일 10:00~11:00 (18:30~19:30)

11/12 일 11:00~12:00 (18:30~19:30)  
11/13 일 10:00~11:00 (18:30~19:30)  
11/14 일 10:00~11:00 (18:30~19:30)  
11/15 일 10:00~11:00 (18:30~19:30)  
11/16 일 10:00~11:00 (18:30~19:30)  
11/17 일 10:00~11:00 (18:30~19:30)  
11/18 일 10:00~11:00 (18:30~19:30)  
11/19 일 10:00~11:00 (18:30~19:30)

11/12 일 11:00~12:00 (18:30~19:30)  
11/13 일 10:00~11:00 (18:30~19:30)  
11/14 일 10:00~11:00 (18:30~19:30)  
11/15 일 10:00~11:00 (18:30~19:30)  
11/16 일 10:00~11:00 (18:30~19:30)  
11/17 일 10:00~11:00 (18:30~19:30)  
11/18 일 10:00~11:00 (18:30~19:30)  
11/19 일 10:00~11:00 (18:30~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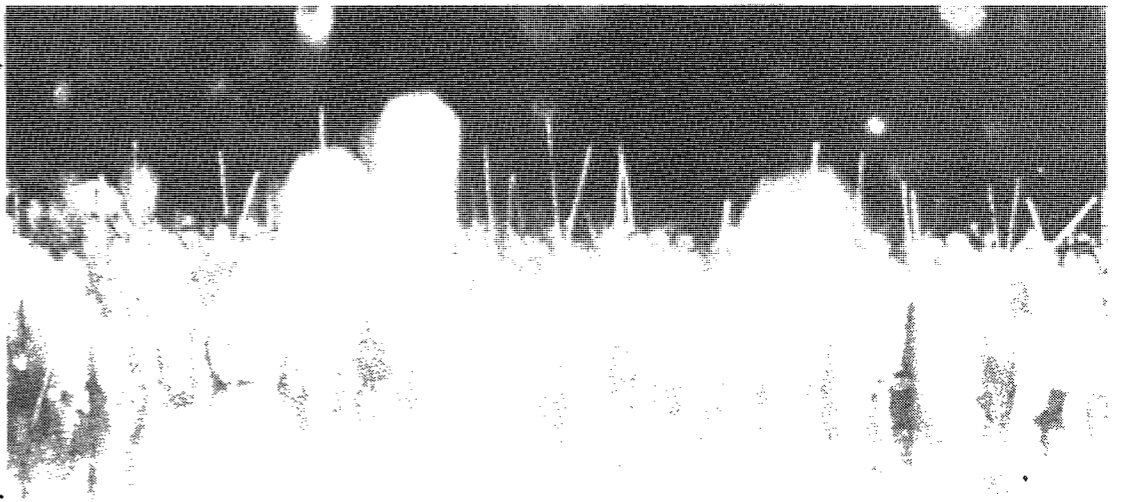
# 변리사 강좌

1992. 6. 22일부터 강의(2개월)
- 과목: 특허법 상보법 의장법
- 강사: 이수용, 이우권 등
- 교재: 이수용 저, 특허법 상보법 의장법
- 장소: 한국공법소수원 법학연구원 (충청남도 연기시)
- 전화: 552-0534, 561-9087
- 회원제 실시 (일본회원·특별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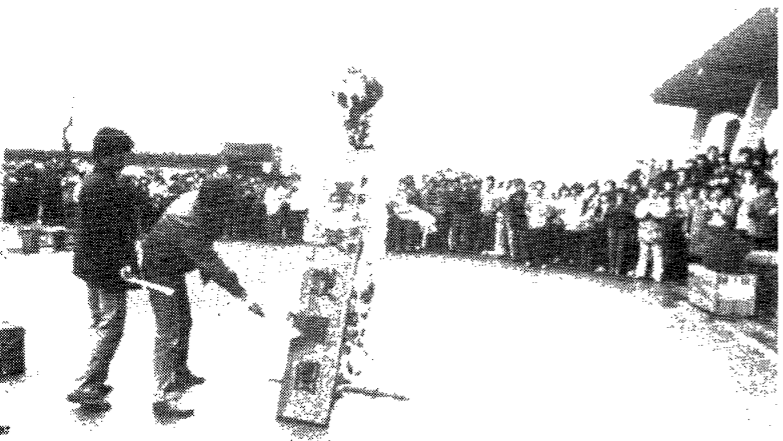
**경찰상주** 80년 5월 이후 학생운동은 전반적 침체기를 맞는다. 정보기관원, 경찰이 학원에 상주, 학생동향을 파악하거나 대학언론 사전검열을 실시한다.

**모색** 90년대 학생운동의 모태는 학생회의 내일은, 86년 이후 계속 논의되고 있는 학생운동론은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학생회운영 현실의 개선은 좀처럼 활발하지 않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것이 90년대 학생회 진로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일 것이다.



### 학생의 날 특집 사진으로 본 80년 이후 학생운동사

# 전진, 반성 그리고 도약



**총학부활** 84년 학도호국단이 폐지되거나 학자주위·총학생회의 구성·부활 등 유화조치에 따른 대중운동의 장이 새롭게 전개된다. 여러 논쟁이 오가면서 학생운동은 목적의식적 변화운동을 지향하게 된다.

학생의 날 63주년을 기념하며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모색되고 있는 학생운동의 진로를 고민하고자 한다.

80년 서울의 봄, 그리고 정보기관원과 경찰이 학원에 상주했던 시절, 그러나 84년 학도호국단 폐지와 총학생회의 부활은 그동안 언더그라운드였으며 국한됐던 사회변혁운동이 학생회로 표면화되면서 활기를 띤다. 이는 87년 6월항쟁과 이후 전노협, 전농 결성의 조직강화 성과를 남긴다.

한편 86년 이후 모색되어 온 학생운동의 대중성확보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로 지금 '위기' '모색기' '전환기'란 말로 대표되면서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 또 82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견과 조직이 존재하는 가운데 87대선보다 성숙된 모습을 띠고 있다. 학생운동의 미래는, 63돌 학생의 날을 맞아 그 진로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작: 사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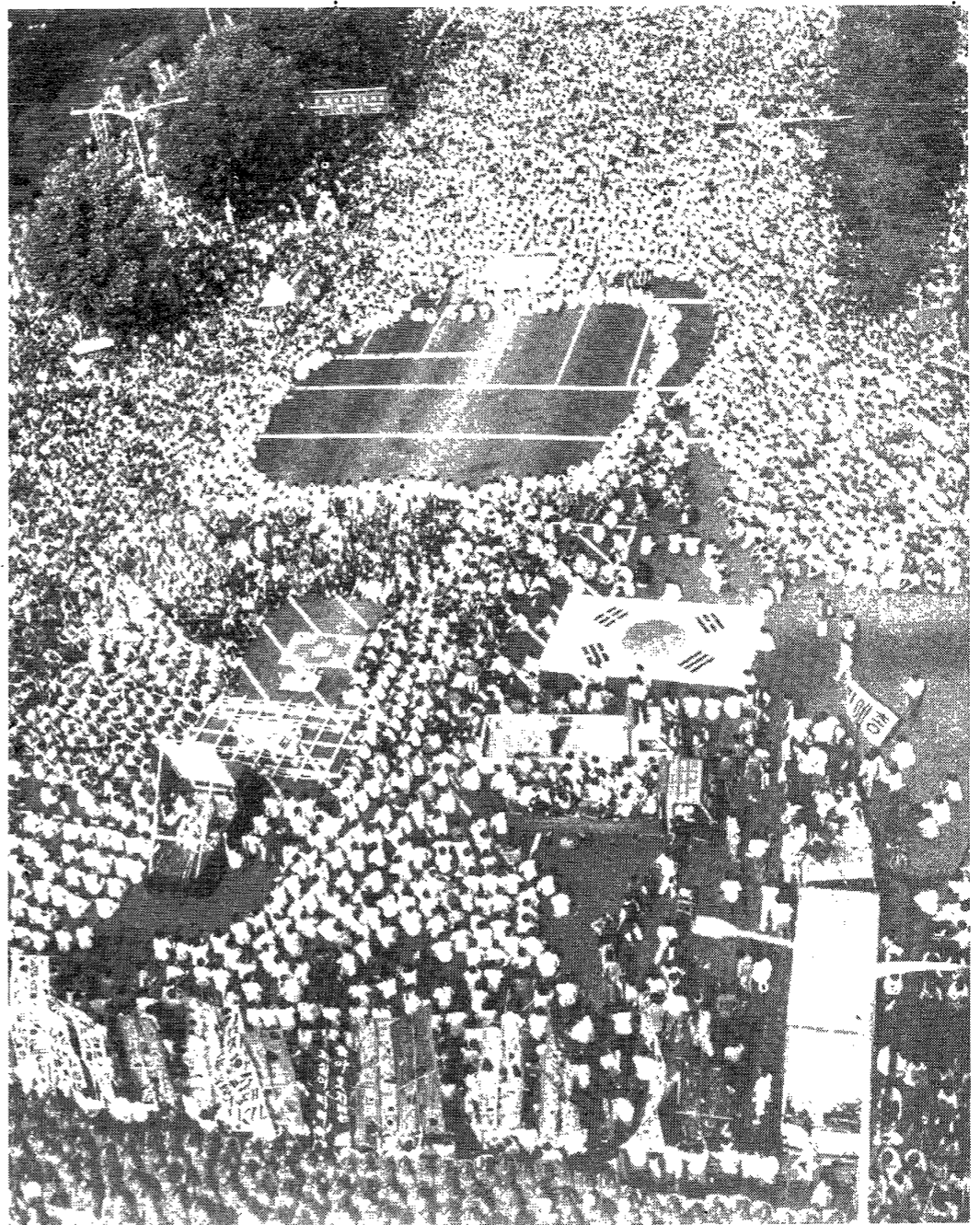


**위기** 현재 학생운동의 위기는 이미 기정 사실화된 듯하다. 학생회풀간체계가 깨져나가며 학생회의 탈, 도서관집중과 함께 학생회는 대중의 정서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성과 보인기, 대중추수주의인가 하는 논쟁이 있지만 학생대중의 정서는 분명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으며 학생회사업작품은 '담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위기'임은 분명하다.

**힘** 91년 5월 투쟁은 그동안 성장해온 재야민주세력과 학생운동의 힘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었다. 한달여간 계속된 가두시위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시민·학생이 명동·동대문에 운집했으며 이는 제2의 6월항쟁을 방불케했다. 이후 학생운동은 정권의 탄압속에 침체기란 진단을 받으며 대중성확보를 위한 일상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87년** 격동의 순간들, 6월 민중항쟁, 7·8·9노동자대투쟁은 민중의 단결이 얼마만큼의 위력을 과시하는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87대선 과정에서 분열의 교착을 겪으며 단결하기 위한 노력이 분출된다. 86년 단결의 승리는 이후 전대협(87년), 전노협(90년), 전농, 전교조 결성의 조직적 성과를 가져온다.





# 경주 총학선거 유세 과열

## 상호비난성 선거운동 지양해야

경주캠퍼스 제10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1차 유세가 어제(3일) 오후 12시30분부터 문무관에서 열렸다.

총5개조가 경선을 치루는 이번 선거의 1차 유세에서 가장 먼저 유세에 나선 기호2번 박승여(국사4), 이진호(법학4) 조는 "경주고속전철은 전면 백지화 투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9대 총학의 미비한 반응을 비판했다. 또한 기호1번에게 "지역 세력을 등에 업고 출마하려는 의도는 공경치 못하다"고 강도 있게 비판하며 자주적 총학생회 건설과 범민주단일후보로 민주정부수립을 원수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기호1번 최승욱(경영

4), 서종길(국사3) 조는 "민주정부수립 원년을 맞아 범민주단일후보로 대선에서 승리, 95년 통일원년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속전철 완전 백지화 △동국발전위 구성 △인복위의 변화 모색을 내세우며 "경주캠퍼스 자치권 확보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히고 역시 제9대 총학의 고속전철 반대투쟁을 비판했다.

기호3번 정순현(경영3), 최현철(미술4) 조는 "진보와 지성의 확립공통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면서 "구조적·의식적 학원 대개혁을 통해 사회적 출몰제가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추진하

겠다"라고 밝혔다.

기호4번 이수길(행정3), 박태연(국사3) 조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경주캠퍼스의 어려움을 똑바로 알고 교수·학생·교직원인 하나되어 자치권 확보를 위해 뛰는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호5번 이혁승(회계3), 조한신(한문3) 조는 "지금까지의 운동권적 학생회가 학원의 현실을 버린 채 조직의 이권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써 "학생들의 어려움을 진지한 자세로 풀어 가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번 1차 유세는 우선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유세전이 되지 못했으나 후보자들의 열띤 경쟁으로 예년에 비해 열기가 높았다. 또한 후보자들 상호비난의 발표로 대학선

거가 아닌 기성선거판을 방불케하는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2차 유세는 오는 5일 정오에 녹야원에서 진행되며 2차 물미팅이 오늘(4일) 오후 6시 총대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 농과대·공과대 학생회장 선출

#### 공대 - 경선으로 선거전 치열

지난달 27·28일 양일간에 걸친 농과대 정·부학생회장선거에 '구국구농의 큰뜻' / 농대총총의 한결 / 이라는 기치로 단독 출마한 반준(인학3) / 이규석(농경3) 조가 당선됐다.

반 이조는 이번 투표를 통해 총유권자 4백80명중 3백12명(투표율65%)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백48명 반대 63명 무효 1표로 79%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 30일 끝난 제15대 공과대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신세대 학생운동 단합 학생회로 진보와 지성의 원동력을 건설

하라 / 공학도 제일주의를 선언한다 / 를 내걸고 입후보한 기호1번 박원식(전기3), 김한준(컴공3) 조가 당선·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총유권자 1천6백91명중 1천2백3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1번 박·김조가 6백55표(50.3%)를 득표, 기호2번 한철희(컴공3)·김성기(토공2) 조의 5백91표보다 14표가 더 많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번 공대선거는 예년에 달리 경선으로 치러져 71.1%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 고 이재열선생 불교관계서적 기증

고 이재열(제야불교 사학자) 선생의 유가족은 지난달 27일 자필유고 2천여장을 포함한 개인 소장 불교관계서적 3백여권을 본교 중앙도서관(관장=홍영백·사학) 측에 기증했다.

지난 1946년 조선불교사의 연구'를 발행하는 등 일생을 불교사학의 종횡을 종주로 하는 조계종의 종통 및 역사연구에 몰두한 고인의 유지에 따른 이번 기증은 '정허정' '석씨원류' 등의 고서류를 포함한 불교관계서적 3백여권 등이다.

### 아리랑·탈 합동공연

아리랑·탈 합동공연 '친구여 이제는이 오늘(4일) 오후5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88년 이후 첫 합동공연인 이번 공연은 탈·아리랑이 9월 초순부터 공동기획하고 연출한 것이다. 또한 합동공연을 통해 탈·아리랑팬이던 타동아리랑에도 단결된 모습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정세에 대처해야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 영남지역 동문체육대회

'제9회 영남지역 동문 체육대회'가 경주캠퍼스 재직 동문회 주최로 지난 1일 경주캠퍼스 문무관에서 열렸다.

### 경주 단대 학생회장 선거완료

#### 의과대·한의대 오는 6일 투표

경주캠퍼스 6개 단과대중 4개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지난 29일 각각 실시돼 당선자들이 확정됐다.

인문과대학: 정·부학생회 선거가 기호1번 홍문표(국사3), 윤운숙(국문3) 조가 유권자 2천3백71명중, 1천2백53명이 참여한 가운데 6백22표를 얻어 당선됐다.

오후 6시부터 원호관(A207)에서 개최된 선거결과에 따르면 홍·윤조는 5백29표를 얻은 김진오(철학·3), 황대성(미술3) 조와 비교해 93표 차이로 당선 확정됐다.

상경대: 정·부학생회 선거 유권자 1천9백24명중 1천1백16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호3번 윤준호(경제3), 권태욱(유전3) 조가 4백83표를 얻어 당선됐다.

자연과학대: 정·부학생회 선거에 박용주(수교3), 김병주(화학3) 조가 단독출마해 유권자 1천2백7명중, 4백8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3백54표, 반대 45표로 당

### ◇경주 중선위원장 정연환(행정4) 군을 만나

#### “공명정대한 선거진행에 만전 기할터”



93학년도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제10대 총학생회 선거가 오는 12일 치뤄지게 된다. 예년과 달리 5개조가 대거입후보함으로써 선거가 가열 될 것이 예상되며 이를 중앙에서 통제하기에 바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공동의장 정연환(행정4) 군을 만나 이에 대한 대책과 선거분위기 조성 및 세부일정을 들어본다.

- 중선위 구성원칙과 운영은

= 중선위는 선거원칙에 따라 예년과 같이 20명으로 구성됐으나 총학부학생회장 노수민(관경4)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탈퇴함에 따라 총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선위의 운영은 중선선거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할 것임이다.

- 예년과달리 5개조가 입후보해 선거가 가열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중선위의 대책은

= 중선위는 5개조가 입후보

한 상황을 감안해 선거규정을 예년과는 달리 강하게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입후보한 각조가 학생회 입장에서 도덕적 양심으로 서로의 불신보다 서로를 인정하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기를 바란다.

- 대자보의 부착물 장소가 지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데.

= 출마한 각조의 많은 홍보물에 의해 또는 부착장소가 지정되지 않아 선거운동기간의 심한 경쟁, 교내환경훼손 등이 우려되지만, 각조의 색다른 개성, 자율성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결실을 유지해 나가도록 힘써줄 것이다.

- 무효표 판정시비가 단대 선거개표시 문제시 되었고 이번 총학선거개표에서도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 무효표 판정에 대한 시비는 중선위 또한 공경하는 부분 이므로 앞으로 있을 물미팅에서 중선위가 주도해 무효표에 관한 시비를 명확하게 규정 지으며, 이에앞서 유권자들에게 무효표 사례를 충분히 인식시켜 깨끗한 한표가 되도록 하겠다.

- 남은기간 공경선거를 위해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가.

= 각급장이 다른 입후보자들의 선거전이 치열할것은 당연시 된다. 하지만 선거에서 중요한것은 공경성이라고 보며 1차 물미팅에서 미흡했던 선거시행계획을 2·3차 미팅에서 상세히 풀어내자고 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뤄지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 학복위 위원장 김운현군 선출

#### 선출방식의 민주적 절차 시급

제8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권혁선·인학4)는 지난 2

일 임원회의를 갖고 차기 위원장에 김운현(회계3) 군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돼 제9대 학복위를 이끌어갈 김군은 제8대 학복위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한편 위원장 선출을 예년과 다름없이 내부임원회의를 통해 호선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온 것에 대해 학내에서는 민주적 절차의 수용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현 위원장 권군은 "각 단과별로 복지위원이 선출되어 이들에 의해 선임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적이나 한해동안 각 단과 복지위원을 선임할 것을 단과대운영위에 참사·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단과복지위원 선출에 대한 단과대 학생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경주 차기 부총장후보 선출

#### 재단측 입장 불분명...마찰 예상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박준학·행정학)는 오늘(4일) 오후4시 소강당 2(원호관4층)에서 차기 부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3대 교수회 결과보고 및 부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안건은 주요내용으로 상정된 이날 임시총회는 기안안건으로 경부고속전철 경주캠퍼스 통폐에 대한 대책방안수립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시총회를 통한 경주캠퍼스 부총장후보선출은 당일 무후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이른바 교향선출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주캠퍼스 부총장후보선출과 관련된 학교당국과 재단측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여서 향후 교수회측과 재단이

에 대한 경주캠퍼스 교수회측의 한 관계자는 "현 교수회 규정상 부총장후보선출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한 교수총회를 통해 선출된 부총장후보를 교수회의의 승인으로 받아들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서울캠퍼스 교수회(회장=이승훈·법학) 측도 "대학행정의 자치권보장을 위해서는 학교당국·재단측의 선거에 의하지 않은 부총장인명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 동불 창립 31주년 기념행사

#### ‘북한불교와...’법회 및 사진전

동아리 불교학생회는 창립 31주년을 맞아 '북한불교와 민족통일'이라는 주제로 기념법회를 오늘(4일)정각원에서 밤타스님(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상임부회장·인철과 71층)을 초청법사로 갖는다.

또한 창립제와 관련된 세미나일(학생회관 2층)에서 '북녘의 가람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금강산 불교유적과 북한사찰 사진전'을 지난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갖는다. <관련기사 8면>

이번 사진전은 법타스님이 북한에 갈때마다 직접 찍어 놓았던 사진을 불교학생회 창립

제를 맞아 원주스님의 연재로 갖게된 것이다.

전시된 사진은 해방전 '금강산 정양사'의 모습에서 최근 울4월에 찍은 '동명성황후 박물관'의 모습까지 50여년간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

### 대학원 후보자 등록

제9대 대학원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후보자 등록이 어제(3일) 마감됐다.

최백호(사회학·석사2학기), 박민미(철학·석사 1학기) 조가 단독입후보한 이번 선거는 16·17일 양일간 실시된다.

제6회(사회학·석사2학기), 박민미(철학·석사 1학기) 조가 단독입후보한 이번 선거는 16·17일 양일간 실시된다.

### 학파소식

<서울캠퍼스>

사학과 제48대 학생회장 선거유세가 어제(3일) 시작돼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원용일(92), 황형규(91) 군이 입후보한 이번 선거는 오는 10일 명진관(A106)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 통계학과

차기 학생회장선거에 단독출마한 김덕현(2) 후보가 지난 2일 과총회를 겸한 찬반투표에서 찬성자 73명중 찬성 65표, 반대 6표로 당선됐다.

경영학과 제6회 무역학부에서 '92 경영 기량제'가 내일(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이번 행사는 체육대회, 1학년 문화공연, 경영인의 밤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된다.

### 컴퓨터공학과

개설 21주년을 맞아 '제5회 무른모전선'을 오늘(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하드웨어 실습실(원호관3층)에서 갖는다.

이강학과 무역학과 제6회 무역학부에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체전, 동국무역발전위원회, 동문회결집, 심포지움등 다양한 행사일정을 가지고 열린다.

### 이강학과 경영학과

제12대 학생회장 선거에 허인호(2)·김성열(1) 군이 단독입후보해 3·4일 양일간 투표가 실시된다. 또한 오늘(4일) 오후 8시 결산보고회 선거를 안건으로 학생총회가 열린다.

대학원 불교학과 중국 북경대 철학계 교수이자 종교연구소장인 투우열교수를 초청, 학술강연회를 오늘(4일) 오후2시 동국관(L310)에서 개최한다.

### 취업은 적자생존이라

○...지난 1일 일제히 실시된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채용시험장은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갑수족 좁아지는 취업문을 열심히 총명이나 하듯 이날 경쟁률은 평균 30대1을 보여 사상최악의 취업전쟁을 실감케했다.

### 이제는

이제는 공경회를 통한 대중적 공간대가 형성된 이후 지난날 29·30일 양일간 실시된 총투표결과, 3천여명의 학생들이 11월 실시를 원하고 있는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총학선거 연기결정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

### 영요를 대졸취업문제는 태평양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워

들이 '우후죽순'마냥 터져나와 학생회에 대한 상을 흐려놓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보나 힘있는 총학선거를 기대해도 무방할 듯.

이에 40여일간의 오욕을 경험한 학생회는 이번 총학선거를 바라는 본 진부대자 한마디 "강력한 학생회의 건설은 학생들과 부단히 만나는 발 운동부터 시작해야 하지요"

### 취업은 적자생존이라

○...제25대 총학선거가 지난달 31일 총학운영위를 통해 40여일간의 긴박을 겪고 11월 실시로 결정됐다는데.

### 취업은 적자생존이라

○...제25대 총학선거가 지난달 31일 총학운영위를 통해 40여일간의 긴박을 겪고 11월 실시로 결정됐다는데.

### 취업은 적자생존이라

○...제25대 총학선거가 지난달 31일 총학운영위를 통해 40여일간의 긴박을 겪고 11월 실시로 결정됐다는데.

### 취업은 적자생존이라

○...제25대 총학선거가 지난달 31일 총학운영위를 통해 40여일간의 긴박을 겪고 11월 실시로 결정됐다는데.

### 취업은 적자생존이라

○...제25대 총학선거가 지난달 31일 총학운영위를 통해 40여일간의 긴박을 겪고 11월 실시로 결정됐다는데.

### 취업은 적자생존이라

○...제25대 총학선거가 지난달 31일 총학운영위를 통해 40여일간의 긴박을 겪고 11월 실시로 결정됐다는데.

### 취업은 적자생존이라

○...제25대 총학선거가 지난달 31일 총학운영위를 통해 40여일간의 긴박을 겪고 11월 실시로 결정됐다는데.

### 취업은 적자생존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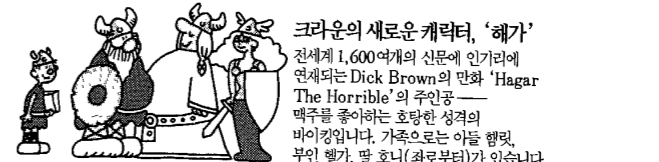
○...제25대 총학선거가 지난달 31일 총학운영위를 통해 40여일간의 긴박을 겪고 11월 실시로 결정됐다는데.

우리 기쁜 젊은날을 위하여 — 헬로우 해가, 헬로우 크라운맥주!



### 이제 세계적인 맥주왕 '해가'가 젊은날의 기쁨과 함께합니다.

앞으로 1년 후, 1993년 — 마침내 크라운이 60년이 됩니다. 크라운맥주는 60년을 1년 앞둔 지금,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속에 함께하기 위해 세계적인 맥주왕 '해가'를 캐릭터로 정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젊은날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할 크라운맥주의 앞날을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크라운의 새로운 캐릭터, '해가' 전세계 1,600여개의 신문에 인기리에 연재되는 Dick Brown의 만화 'Hagar The Horrible'의 주인공 — 맥주를 좋아하는 호랑이 성격의 미친개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들 해미, 무인 행, 딸 로비(카로리)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크라운맥주**



### 'MBC 마당놀이'의 현재적 의미를 되짚는다

우리 전통문화의 태동은 '마당'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네 조상들이 태어난 아이의 태(胎)를 걸어놓고 무병장수를 빌었으며 추수때엔 곡식을 털고 잔치를 치렀던 곳. 그리고 죽어서 상여가 나갈때까지 모든 회교애락이 담긴 곳이 곧 마당인 것이다. 또한 '마당놀이'라 하여 음력 설

# 배우와 관객, 그리고 전통문화의 새로운 만남

만 하는, 서양의 틀에 박힌 공연형태만이 현 우리문화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우러짐의 문화'라 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놀이형식인 마당극을 통해,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것과 재미가 무엇인지 깨우치게 하는 'MBC 마당놀이'의 의미를 점검한다는 것은 꽤 의미

또한 대중들도 남녀노소 구분없이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극적 재미로 공연마당과 TV를 떠나지 못한다. 이들 마당놀이에 출연자들은 '보여주는 판만을 벌여놓지는 않는다. 관객은 연기자의 계속되는 '추입'속에 함께 마당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 방방곡곡을 뜨거워 열기와 웃음으로 가득채우는 마당놀이는 우리 고유의 놀이형식인 마당극을 통해 관객과 연기자가 함께 호흡하는 어우러짐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 대중적 소외 벗어난 새로운 국악형태 창작요소 살려 우리문화 재생산에 이바지

달 그림자나 실이 되면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의 마당에서 한판 갖을 편치기도 했던 전통적인 민중문화가 숨쉬는 장소다. 지금에서 '마당놀이'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이런 조상들이 혼이 담긴 우리의 민중문화가 쇠퇴되어가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해진 무대에서 곡을 하는 수많은 연기단 하고 관객은 그냥 보기

있는 일일듯 하다. 이미 81년 '허생전'으로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1년째를 맞는 MBC 마당놀이는 해를 거듭할 수록 대중의 인기를 한껏 몸에 받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 방방곡곡을 뜨거워 열기와 웃음으로 가득채우는 이 마당놀이는 이제 국악인들로 하여금 대중적 소외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제는 옛조상들이 마당에서 펼쳤던 전통민중예술이 갖고 있는 '대중'의 호흡이다. 한편, MBC 마당놀이는 관객들과 함께 하는 놀이판을 통해 우리 것의 소중함을 전하는 역할과 함께 또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고전소설이나 판소리에서 작곡소재를 살려 이를 현대감각에 맞게 재가색하여 창작요소를 한껏 살린과 동시에 극에 맞는 새로운 국악곡을 만들어 우리문화의 재생산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점이다. 84년부터 올해 '신 이춘풍전'까지 MBC 마당놀이의 창작곡을 거의 작곡하다시피해온 박병준(중앙 국악

과, 중앙국악관련학단 상임지휘자) 교수는 "현대적 국악창작곡은 전통성을 되살리는 것이다"라며 전통성 상실의 관점에서 마당놀이를 보는 의견에 대해 이견을 밝힌다. 한편당 35곡정도를 작곡한다는 박교수는 "처음엔 그릇된 시각으로 지켜보던 국악관계자들도 이제는 직접 참관할 정도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전통의 계승 발전 및 현대적 재창조로 제자리를 찾고있는 MBC 마당놀이 11번째 공연 '신 이춘풍전'이 지난 2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3개 지역 지방순회공연을 하고 오는 28일부터 12월13일까지는 서울문화회 육묘장에서 공연이 계속된다. 주요연기는 윤복식, 김성녀, 정태희씨들이 하게되며 반주는 중앙관악단이며, 농악은 사물놀이 '두테페'가 맡는다. 이제 마당놀이는 우리에게 전통과 만나게 해주는 새로운 '마당'을 다시 찾게 해준 셈이다. <박수로 기자>

### 지상전시 '금강산 불교유적과 북한사찰사건'

◇백두와 한라의 만남

백두산 천지에서 머리 준비해간 한라산의 흙을 흠뻑리고 합장하는 스님의 모습

◇내금강산 보덕굴

작이큰 벼랑의 돌출부위이래로 쇠기 등을 내려 중력을 지탱하는 작은암자. 본전은 관음굴이지만 통칭 보덕굴이라 한다.

◇불교학술회는 창립 31주년을 맞아 지난2일부터 오는6일까지 세미나실(학술회관 2층)에서 본교 출신 법타(인철 71졸·자재일주지) 스님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찍은 '금강산 불교유적과 북한사찰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 알아들시다 학생의 날

1929년 11월 3일은 이때까지 쌓이고 쌓였던 광주시내 한국인 학생들의 울분이 일시에 폭발하여 광주학생운동을 일으킨 날이며 이를 계기로 전국학생들이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한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1929년 10월 30일 오후 5시30분경 광주에서 통학생을 실은 하행통학열차가 나주역에 도착, 통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출철구로 나갈 때 광주중학교 4년생 복전수삼(福田修三), 만진규기(末吉克己), 전중(田中) 등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3년생인 박기옥(朴己玉), 이광춘(李光春), 이금자(李錦子) 등을 선징(線釘)이라 조롱하며 복전수삼이 박기옥의 땀가마리를 잡아당기며 회롱하니 여학생들은 항거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박준재(朴準宰, 박기옥의 4촌종생) 광주학생운동, 신동아 1969년 9월호

일본인 교사들이나 지각없는 일인들의 입에서 불시에 튀어나오던 이 비침에 대하여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재(당시 광주고등보통학교 1년)와 복전수삼의 싸움이 앙교 통학열차의 패색을으로 변하게 된다. 이 사건이 '선인주제에 건방지다'느니 '선인학생이 잘못했다'느니의 편파적 보도와 일인교사의 차별로 일관되던 한국인 학생들은 더이상 분노를 참지 못했다.

명치절(明治節)인 11월 3일, 울먹으로는 10월 3일이 되어 우리 민족에게는 개천절인 바로이날 광주의 2천여 학생들은 원기후합일투쟁으로 돌입하였으, 마침내 전국적으로 반지 5천8백여명이 이에 가담, 이듬해 2월까지 계속된다. 그후 선배의 추모, 애국심양고, 학원지주 등을 위하여 매년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정하여 기념해왔으나 1973년 폐지된다. <문화부>

###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위한 '노래·영화의 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노래·영화의 밤'행사가 지난 1일 오후 3·6시 두차례에 걸쳐 본교 중앙당에서 유가협, 민가협 주최로 열렸다. 이 행사는 노동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상영이 주를 이었는데, 영화 상영에 앞서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의 작곡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성민씨가 영화의 주제곡과 다수의 삽입곡들을 선보

다. 작업중 프레스에 의해 불구가 되고 더욱더 악화되는 빈곤속에서 이북고향에 대한 향수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패배주의적 삶.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두아들 민철(노동자)과 민철(대학생)을 축으로 해서 사회모순에 항거하는 활동가로서의 행보를 생동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것은 8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문치사, 가두시위, 노동운동의

## 민중이 만든 민중의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이제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는 동시체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엔 상영한 '이름없는 영웅들'은 민중의 삶을 유쾌하게 영상에 담아내기 위해 지난해 결성된 노동자 주축의 모임인 '남누리 영상'의 처녀작이다.

5개월이 넘는 제작기간과 2천3백만원의 제작비를 들인 이 작품은 열악한 제작조건으로 인해 작품전개의 어려움이나 구성·기법등의 서투름이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이러한 허점을 극복하고 호평을 받는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는 선반공으로 10여년간 노동현장에서 겪은 생활과 체험을 바탕으로 연출, 주연, 시나리오 제작 등 다역함을 해낸 배인오(27)씨의 의도가 투박하나마 작품전체에 투영돼 있다는 점이고 둘째,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슬픔의 절곡과 기층민중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녹아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민중적 관점으로 영화의 주제·소재의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로부터 접근해 가려는 시도가 보여졌다는 면이다. 1·4후회때 월남한 한 노동자가 죽을 모럴로 하여 이 영화는 진정한

### 문화단신

신간안내

◇인도의 철학...하인리히 짐머 박사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손질하여 엮은 책. 1부와 2부에 걸쳐 나누어

### 현상공모

◇제9회 제한 문학상...경산대 학보사에서 대학문화정당과 문예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마련한 공모전. 응모부분-시, 수필, 단편 소설, 응모방법-제학중앙에서 1통과 작품제출. 응모마감-오는 30

### 내탓이오

의가 있다. ▲예슬대를 제외한 단과대 학생회선거가 지난주에 마무리됐다. 해마다 선거철이면 나타나는 '내탓이오' 아닌 '남의 탓'의 풍토가 이번 선거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특히 낙선자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던가를 깊이 생각해보기 이전에 당선자만을 나무라려는 듯하다. 모단체 한쪽 선거운동본부에서는 본지 1110호의 선거공약

### 내탓이오

최경인 <9>

으옥! 대리가 아픈데...

여기 대리를 넣으시죠!

취급증 어떻게 안될까요?

당신의 꿈을 버리시죠.

# (주)금강·고려화학·금강종합건설은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의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귀국의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에 있어서 정상에 자리한 (주)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은 더욱 더 앞선 기술과 투자를 통해 국내·외에 그 명성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부한 무기질 광석자원을 활용하여 보는 단열재, 내외장재 및 판유리, 자동차유리 등 유리산업에 이르기까지 조영역의 극한 물성에 도전하는 - (주)금강, 일반 페인트에서 선박, 자동차, 컨테이너, 반도체 봉지재까지 세계 굴지의 화학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며 정밀화학산업을 이끌어가는 -고려화학(주), 우수한 인적자원과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을 추구하는 - 금강종합건설(주)은 이 땅의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자금강고려화학▲금강종합건설(주)